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1851년 6월 14일, 삼위일체 대축일 하루 전날, 27세의 나이에 줄 슈발리에에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부르주 신학교 정원에 있는 경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했는데, 그는 이 순간을 회상하며 말하기를,

"축성의 순간, 하느님 신비의 위대함과 나의 무가치함에 대한 생각이 나를 압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Personal notes, series 1, Opera Jules Chevalier MSC, vol. 2, 14). 이후 세 곳의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사목 한 후, 슈발리에에는 이슈뎅의 보좌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1854년 10월 21일, 그는 이슈뎅에 도착하여 그보다 몇 달 앞서 부임한 에밀 모쥬네 신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from Fifteen Days of Prayer with Jules Chevalier, Fr Andre Mayor, MSC, p.7].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공생활 기간 중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도덕적이든 육체적이든 온갖 비참함과 불행에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간음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무한한 동정심과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그 부드러운 보살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은 성심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SCJ 9).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슈발리에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관찰합니다...지상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었고, 고통받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으며, 잃은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Meditations for each day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Sacred Heart, volume 2, 642.)

세상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성심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즉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버린 구원의 길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문을 열고 창문을 여십시오! 죽어가는 세상과 고통받는 지구와 모든 피조물이 숨을 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기가 들어와 순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토록 큰 사랑으로 베푸신 은총을 영혼들에게 돌려주고, 이 대기를 호흡하는 세상에 하느님을 돌려주십시오."(SCJ 285-286).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예수님의 마음으로 슈발리에와 함께 오늘의 세상을 보고 들어 봅시다. 세상, 사회, 공동체, 가족/본당/일터에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긴급한 필요를 어디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어떻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이달의 기도

오, 모든 피조물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느님,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현존과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당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 마음의 평화와 연민, 사랑을 반영할 수 있게 하소서.

이를 통해, 슈발리에 가족인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from 100 prayers, no. 16.)

